

수유너머파랑 몸생명사물의 존재론 6강

## 사물의 존재론 -신유물론의 토대

### 객체 내부 운동

토마스 네일의 운동유물론kinetic materialism



*philonatu.com*

최종덕  
(philonatu.com)

2025년 11월 17일

## 이번 주 네일은 지난 주 모튼과 달리,

- ① 사물이 물러나 있다는 withdrawl 은폐형 실재가 아니라 실재 자체가 운동 중이라는 과정 실재론을 취한다.
- ② 인간(Anthropos)이 지구 시스템에 지질학적 규모의 영향을 끼친다는 뜻에서 지칭된 인류세(Anthropocene)는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여,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영향과 책임을 무시하게 된다고 네일은 비판한다.
- ③ 인류세 대신에 네일이 지칭하는 "kinocene"은 지구상태만이 아니라, 지구정치학 kinopolitics을 제시하는데, 정지와 안정 대신에 운동과 이동에 기반한 것으로서 기후자본주의, 소외와 빈곤국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방적 운동의 대안으로 생각한다.

하먼이 객체의 '물러섬'을 통해 객체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면,  
네일은 '운동'과 '합류'를 통해 모든 것의 관계성과 과정성을 강조

네일에서 다양체를 구성하는 '흐름'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며, 객체는 이러한 흐름들의 합류와 상호작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현상 또는 결과다.

네일에게 객체는 관계의 효과이자 과정의 일시적인 정지 상태에 가깝다.

네일은 하먼의 객체론이 여전히 '정지된 객체'라는 서구 철학의 오랜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네일에게 중요한 것은 개별 객체 자체가 아니라, 객체를 생성하고 변형시키는 근원적인 '운동'과 '흐름', 그리고 그들이 얽혀 형성되는 '다양체'다.

## 들뢰즈와 화이트헤드를 읽는 네일, 옹호와 비판

- (들뢰즈) '사유의 운동'에 대한 우선권: 들뢰즈는 철학을 '물질의 운동'이 아닌, '사유의 무한한 움직임'과 '개념의 생성'으로 정의함으로써, 물질 자체의 동적인 존재론적 중요성을 간과했다.
- (화이트헤드) "운동은 정지를 전제한다. 운동의 이론과정지의 이론은같은것이나, 다른 강조점을가 지고 다른 면모에서 본 것일 뿐이다." 화이트헤드는 《자연의 개념The concept of nature》에서 변화는 현실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이고 현실적 존재는 여전히 정지적인 원자라고 평가한다

# 네일의 생기론 비판

- 신유물론의 일부, 생기론을 적극 재도입하려는 new-vitalists들이 있다. 그러나 네일의 기본적인 입장은 유물론에서 생기론은 필요없다는 데에 있다. 물질이 생명적이 아니더라도 운동하기 때문이다.
- 이 점에서 네일은 캐런 버라드와 Mel Y. Chen (Animacy 계층성 전복) 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 네일의 비인간 중심성 (Nonhumanism):

- 세계의 근본적인 원리를 인간이 아닌 “운동”motion에 있다.
- 그의 '키노세네' 개념은 지구의 변화를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물질 자체의 광범위한 이동성과 순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는 인간을 세계의 중심이나 유일한 행위자로 보는 전통적인 인간 중심주의(humanism)에서 벗어난다.
-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운동의 흐름' 속에 있음을 강조하며, 인간의 독특한 지위나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 네일이 본 에피쿠로스

- 에피쿠로스에서 낙하하는 원자는 예측불가, 우연적, 자율적인 클리나멘 clinamen (Paréklisis)과학운동
- (루크레티우스 연관 현대해설에 따르면) 에피쿠로스는 원자운동을 “이동”으로 보았지, 운동 자체가 존재의 근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 (루크레티우스의 시를 읽다보면)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운동을 존재에 종속시킨 결과임을 깨닫게 된다. 운동은 그 자체가 시작이자 끝이며, 존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흐름이다.
- 에피쿠로스에게 원자들은 '공허(void)' 속 운동이다. '공허'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지된 '공간'이나 '배경' 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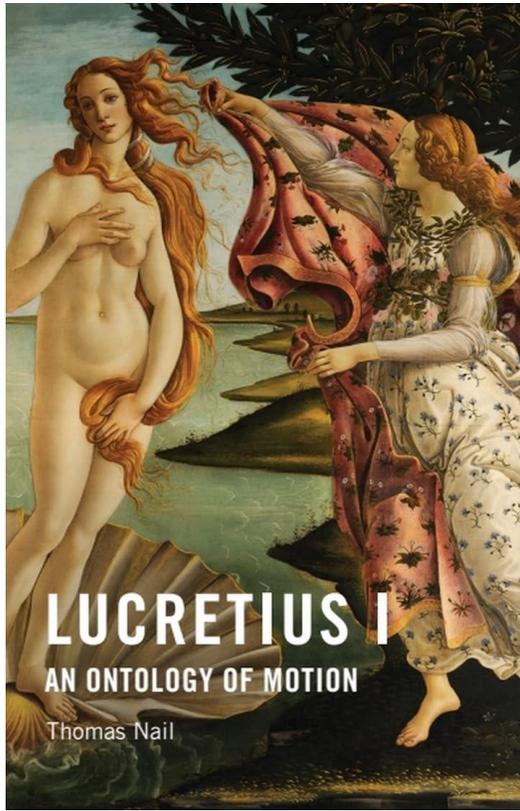
그린비 크리티컬 컬렉션 02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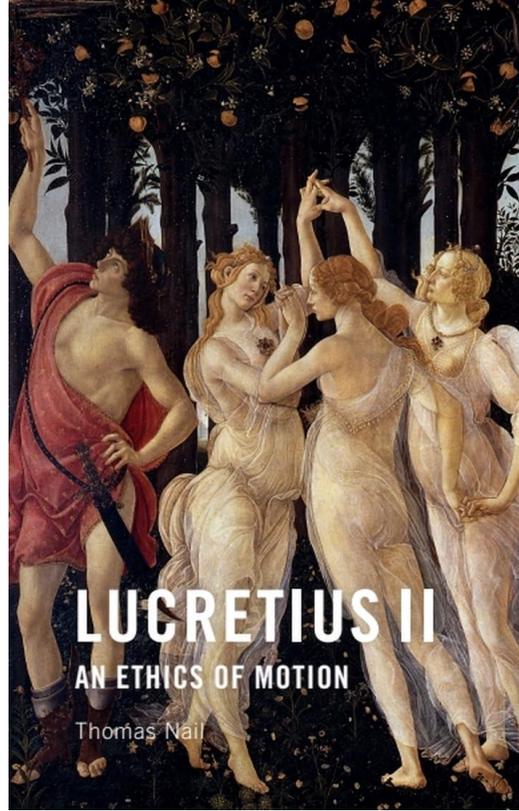
맑스 박사 학위 논문

칼 맑스 지음 | 고병권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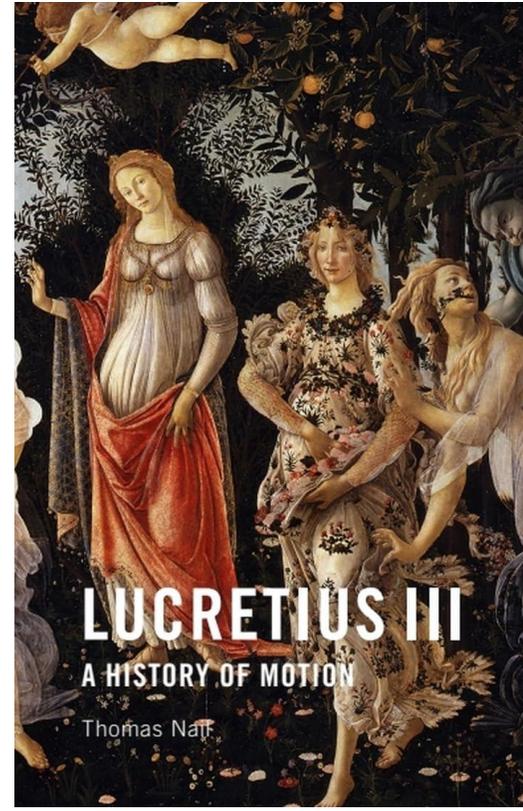
Marx



2018, 1권 288쪽



2020, 2권 240쪽



2022, 3권 232쪽

Thomas Nail, Lucretius I, II, III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1510)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 베라"에서 따온 책 표지

자연의 생명력과 생성과 소멸을 상징하는 루크레티우스의 비너스 찬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미셸 세르, 알랭 바디우, 토마스 네일 모두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을 원자 운동의 무질서 속 질서를 창출하는 생명의 순간으로 상징한다.

# 네일이 본 루크레티우스

- 물질 운동에서 외부의 초월적 작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물질의 불확정성 운동은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를 생성한다.
- 물질이 A에서 B로의 위치이동한 것을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물질의 A상태와 B상태를 생성하는 과정이 곧 운동이다.
- 베르그송은 '생명의 약동(élan vital)'을 , 스피노자는 '코나투스(conatus)'는 생 이론적 유물론의 특징을 가지지만, 루크레티우스에게 물질은 어떤 외적 원인도, 내재적인 생명력, 에너지, 또는 동력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운동한다는 점이다. 루크레티우스에서 자연이란 운동성 그 자체이다.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고  
원자의 포켓형 운동 (clinamen)  
으로 표현된 물질성이다.

unmoved mover 처럼  
운동을 일으키는  
외부 자극은  
없다

스스로  
운동한다

# 루크레티우스

## 네이일의 운동장 이론

(동일이 아닌 바늘 처럼)  
기계적 원자가  
아니다

운동의 목적은  
없다.

네이일은  
마르코스 푸르코를  
루크레티우스  
시선으로 해석한다.

공허는  
원자가  
운동하는  
배경의  
반응이  
아니다.

세계는  
원자와 공허로  
구성된 지면  
공허와 원자는  
반대되어 있지만  
연속적이다

결정된  
운동 방향은  
없다.

존재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주관주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운동해온 역사적 객체다.

(존재와 운동 47-8)

초월적 작동자나 생기적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객체다.

## 네일의 객체 : 혼종성, 방행, 되먹임

1. 객체는 고정적이거나 실체적 사물thing이 아니라 운동하는 과정process이다.
2. 객체의 존재는 외부력이 아니라 내부에 작용되는 장력에서 비롯된다. 내부의 장력으로부터 객체 자신이 운동하고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하게 만든다.
3. 객체는 물질적이지만 또한 대양의 파도처럼 변성의 물질 안에서 창발하고 지속하며 흠어진다.(네일 2024, 46)
4. 물질은 언제나 운동-중인-물질이다.
5. 객체는 양과 질의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

# Thomas Nail 의 저서

- ***Returning to Revolution: Deleuze, Guattari and Zapatismo*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2015)**
- *The Figure of the Migrant*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 *Theory of the B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Lucretius I: An Ontology of 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8),
- *Being and 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Theory of the Imag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Lucretius II: An Ethics of 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0),
- *Marx in Motion: A New Materialist Marx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Theory of the Earth*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1),
- *Theory of the Object*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1),
- *Lucretius III: A History of 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2),
- *Matter and Motion: A Brief History of Kinetic Materialism*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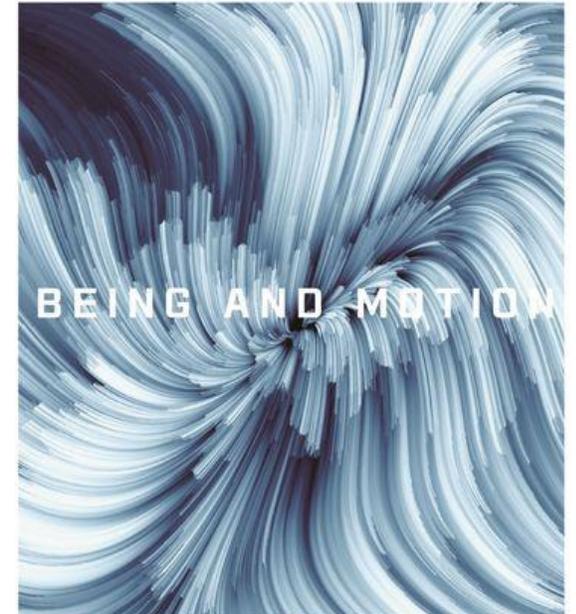
박사학위논문

MHI 13  
Mobility  
Humanities  
Interconnect

존재와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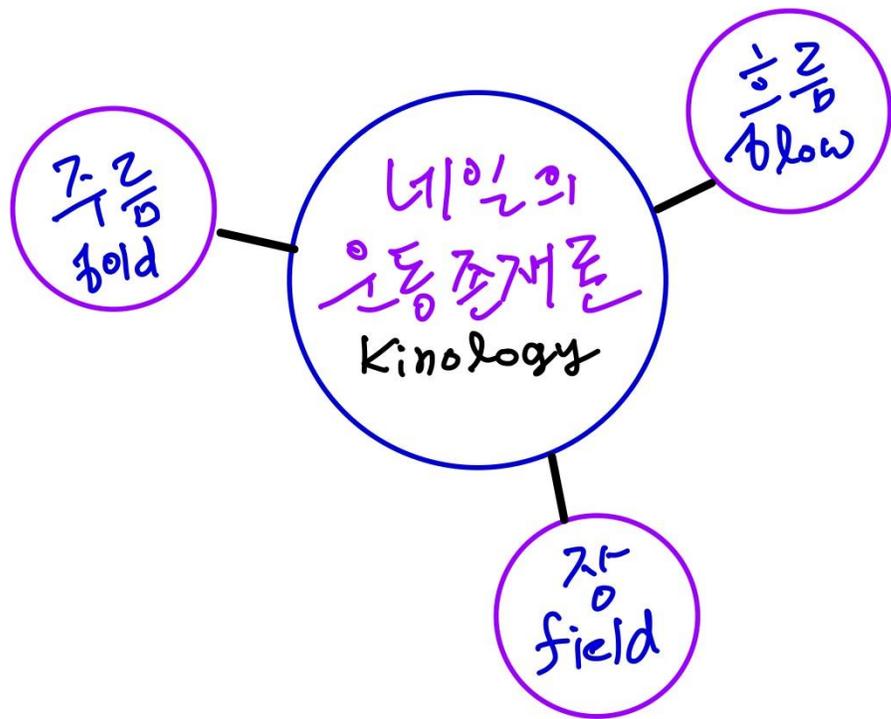
움직임에 대한 철학의 역사

토머스 내일 지음 최일만 옮김



앤...

"모든 것은 움직인다  
omnia moveri!"



“ 움직임은 비결정적으로 흐르고,  
 주안점 객체로 접혀  
 허전 (반반) 하여  
 다른 객체들과  
 더불어 장으로 흠어진다.”

(네일 2024, 36)

- 예시) . 바디워의 움직임
- . 스타일계의 수식어
- . K. 버나드의 양자장론

# 엔트로피, 두 가지 양상

- ① 열역학적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높다), 엔트로피가 높아질수록 시스템 상태가 무너진다는 것이므로 상태 정보가 상실된다.
- ② 정보이론적 엔트로피: 불확실성(이 높다), 즉 사건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거꾸로 미래의 새로운 정보가 생성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 닫힌계에서

낮은 엔트로피



높은 엔트로피

- ✓ 질서에서 무질서로
  - ✓ 집중된 에너지에서 분산된(소산되는) 에너지로
- ✓ 시간이 흐름에 따라간다(비가역적,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
- ✓ 에너지가 일할 수 있는 가용성available이 감소된다
  - ✓ 얽힘의 정도가 커진다
  - ✓ 정보가 많아지지만 그만큼 모호해진다
  - ✓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으로

## 임의의 열린계에서

높은 엔트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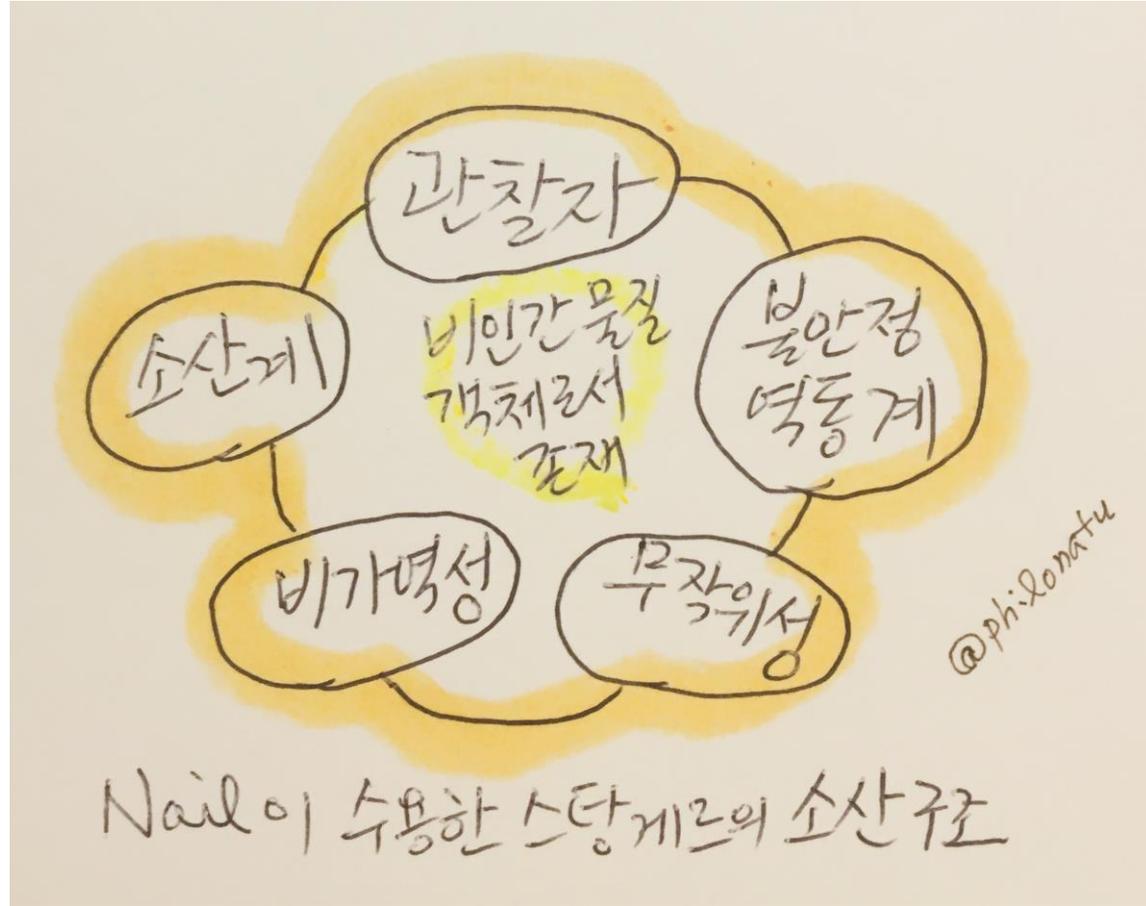
낮은 엔트로피

- ✓ 무생명에서 생명이 창출될 수 있다.
- ✓ 무질서에서 자기조직화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열린 질서계를 소산구조라고 한다)
- ✓ 얽힘이 일정 공간에서 풀어진다
- ✓ 광대한 정보가 축소되지만 축소된 정보가 의미를 갖게 된다.

토마스 네일의 Metastable pattern

# 단순물체가 아니라 소산구조 dissipative system

- 안정성이나 고정된 형태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서구 철학적 사고방식과 달리, 존재(being)는 본질적으로 운동(motion)이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
- 외부와 물질 및 에너지를 교환하는 '열린 시스템(open system)'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더라도, 시스템이 새로운 질서와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 소산구조는 이러한 역동성을 나타낸다.
- 역동성의 소산구조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와 형태 생성
- '키노폴리틱스(Kinopolitics)'의 정치와 윤리는 더 이상 고정된 이상이나 안정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권력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네일은 말한다.
- 소산구조 관점에서 '쓰레기'나 '폐기물'은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질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새로운 의미를 얻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움직이는 존재'어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 준안정계, metastasis

- 준안정성은 마치 얽힘의 정도가 풀려서 아주 약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얽힘의 정도가 아주 작아지면서 그런 경우가 바로 이산적이고 분리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물로 여겨진다.

# 준안정성이란 엔트로피가 국소적으로 적어지는 상태

- 얽힘의 정도가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더 높다. 즉 얽힘의 강도는 엔트로피의 강도와 같으며 잠세태 강도에 연관한다. (정보이론 관점) 엔트로피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정보축소가 되고 준안정성으로 형성된다.
- 얽힘이 높다는 것은 여러 입자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상태만으로는 전체 시스템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복잡성 자체가 시스템이 담고 있는 정보의 양, 즉 엔트로피를 높이는 것이다.(객체란 356)
- 엔트로피와 얽힘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덜 얽히게 되고 덜 무질서해지며, 덜 비결정적인 것으로 된다. 그래서 준안정성이라는 비교적 이산적인 상태가 생성된다.(비로소 드러난다) 이것이 객체의 생성이다.(객체란 357)

# 바디우, 순수한 다수성

- 바디우(1937- ) 초기 작품 『존재와 사건』(1988)은 **집합론**을 통해 **존재 (Being)** 그 자체를 다룸.
- 수학, 특히 칸토어의 집합론이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인 '순수한 다수성'을 표현한다고 강조
- 바디우에서 진리가 태어난 곳(진리의 사건) : 과학(수학), 예술, 정치, 사랑

# 바디우

존재는 오직 다수성이며,  
다수성은 오직 집합론적 다수성이다.

- 바디우의 사건 개념은 루크레티우스의 공허 개념에서 창출된다.
- 공허 - 집합론의 공집합 - 다시 열역학적 카오스로 연결
- 소산구조로서 "사건 "

# 바디우, 집합론

- 집합론은 '하나로 셈하기(count-as-one)'를 통해 존재를 질서화하는 학문
- 자본주의라는 집합에서, 우리는 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을 각각의 '하나'로 세어 이들의 관계를 규정.
- 그러나 사건은 이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은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질서(자본주의라는 집합)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사회주의)를 창출했다.
- 바디우에게 혁명은 단순히 기존 집합의 부분집합의 상황이 아니라, 그 집합의 규칙을 초월하는 사건의 초과(excess)이며, 이는 집합론의 논리로 온전히 포착될 수 없다. 후기 **범주론으로 이행한다**

# 존재의 변증법:

『존재와 사건』(1988)에서 존재는 다수성의 원리에 의해 파악되지만, 후기 『세계의 논리들』(2006)에서는 범주론적 관계 속에서 존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바디우 철학에서 '정적'인 존재론에서 '동적'인 변증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범주론

- 마을에서 유일한 한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해준다고 정해놓았다
- 이발사 자신이 면도한다면,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한다는 규칙에 모순된다.
- 이발사가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그런 사람(자신)을 면도 해줘야 한다는 규칙에 모순된다.
- 원소 (객체)에 의존하는 집합론은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반면 원소(객체)가 아닌 원소들 사이의 관계(사상)로 구성된 수학언어를 만들었다. 그것이 범주론이다.

# 바디우에서 네일로, 범주론 기본과 의미

- 객체 (Objects): 범주론에서 객체는 우리가 세계 안에서 마주하는 모든 존재자들(개인, 사물, 개념 등)
- 화살표 (Morphisms): 객체들 사이의 관계, 즉 상호작용이나 변환.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생각(객체)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행위도 '화살표'
- 논리적 공간 (Topos): 바디우에서 범주론의 '논리적 공간'(Topos)은 객체와 화살표로 이루어진 매우 유연한 구조로서 세계를 표현하며 다양한 논리와 의미론을 담을 수 있는 수학적 틀
- **객체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객체를 생성한다**

# 범주-객체-화살표를 지도-구조물-길에 비유한다면

- ① 어느 도시의 지도를 범주라고 비유하면
- ② 그 지도에 포기되는 도시 내 구조물(건물 등) 이나 자연물들은 객체에 비유된다.
- ③ 그 구조물과 자연물들 사이를 연결하는 수많은 길은 화살(사상, morphism, arrow)로 비유
- ④ 지점 A에서 B로 가는 길과 B에서 C로 가는 길을 합치면 A에서 C로 가는 여행이 되는데, 그런 여행은 사상들의 합성에 비유된다. 그런 여행의 논리적 공간이 토포스로 비유된다.

범주론에서 객체(Object)는  
그 자체로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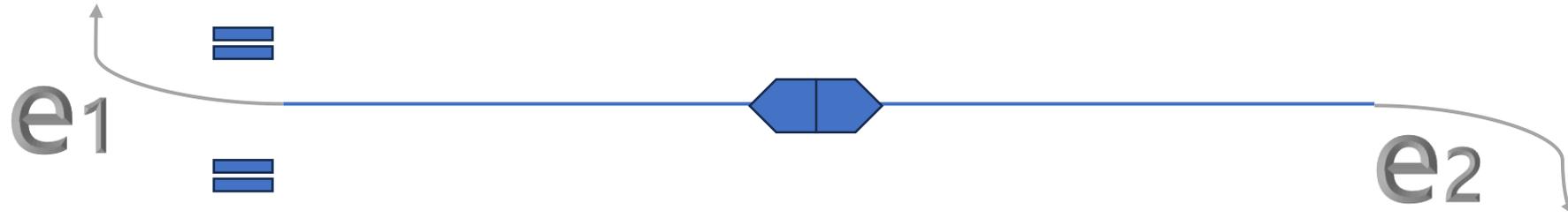
다른 객체들과의 관계(Relationship)를 통해서만 그 정체성이 정의된다.

## 네일, 범주론의 객체: 자기상호성과 준안정성

- 자기 상호작용성이란 객체는 다른 객체들과 화살표를 통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특질을 말한다.
- 준안정성이란 객체의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화살표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시적인 안정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한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는 것처럼, 특정 조건(화살표들의 집합)하에서만 그 정체성이 잠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여준다.(객체란 373)



$$|e_1\rangle + |e_2\rangle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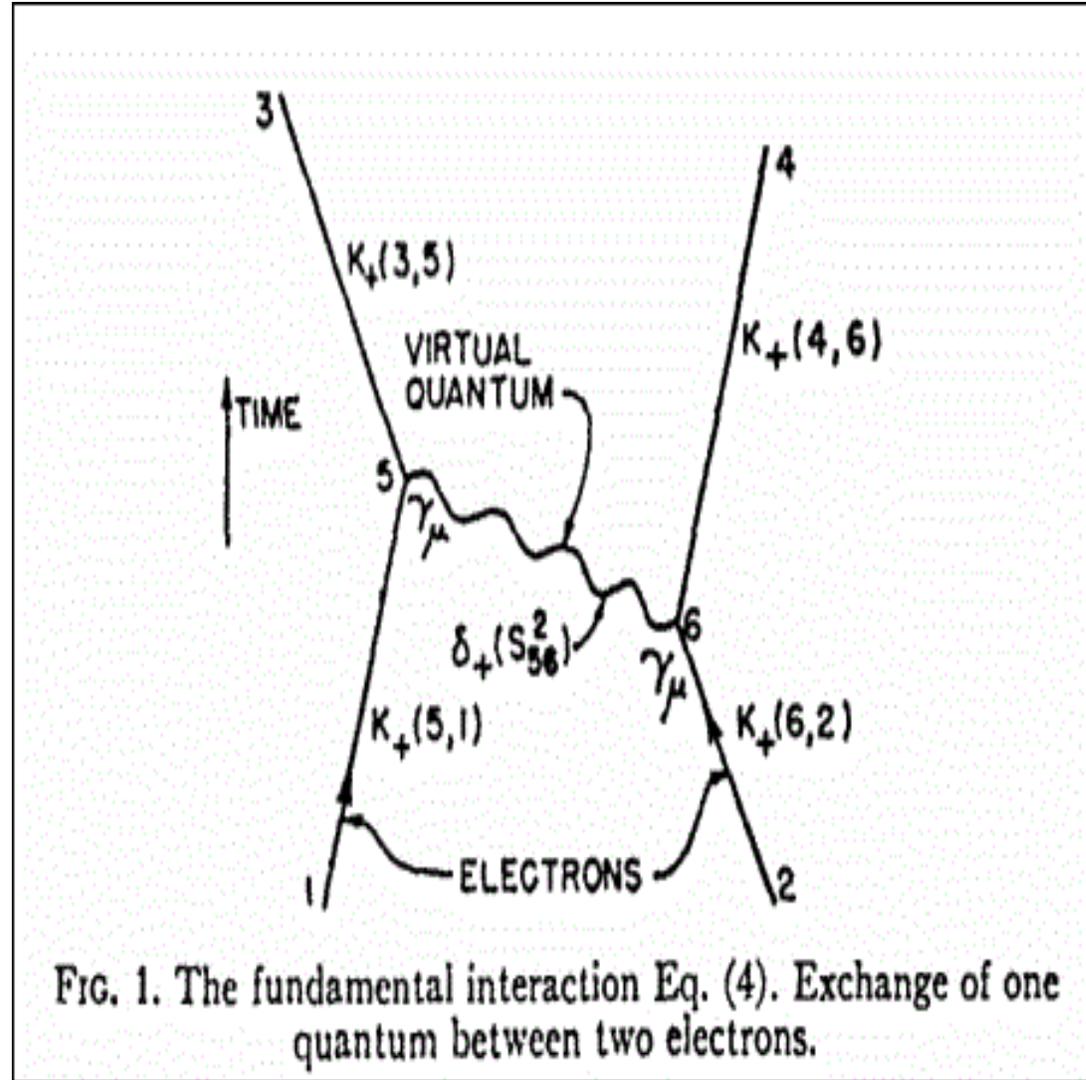


양쪽의 전자 2개는

서로에게 얽혀진 하나의 현상

# Nothingness 무 진공-물질-양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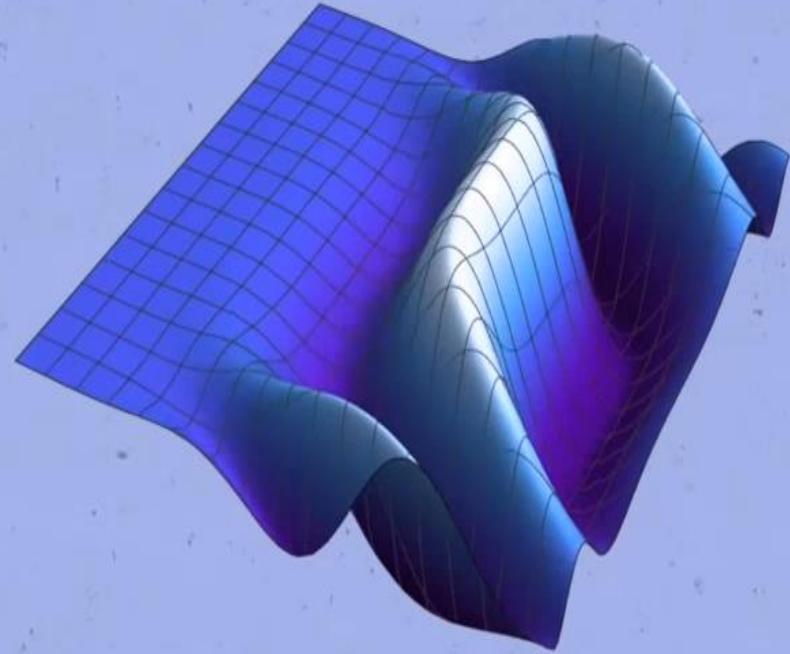
- 진공은 에너지 최소 바닥상태일 뿐이며, 물질(전자/반전자)과 장에서 요동을 나눠가지는 동적 상태다. 양자장에서 바닥에너지 상태가 되면 진공이고 그 양자장이 들뜬 상태로 되면 물질(입자)이 되는 것이다.
- 무와 유, 진공과 물질 그리고 장은 서로에게 **얽힘** 관계이다.
- 전자는 반전자와 얽혀있는데, 광자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소멸되었다가 다시 생성되는 짧은 순간(  $< \sim 10^{-21}$  sec)을 통해 물질은 맞닿게 된다.



Feynman Diagram,  
1949

[www.BANDICAM.com](http://www.BANDICAM.com)

# FIELD THEORIES



물리학자 스몰린의  
Things사물의 존재양태

objects 물체

느린 시간에  
걸쳐 변화

processes 과정

빠른 시간 안에  
변화

Lee Smolin 2001, Three Roads to Quantum Gravity.

Chap.4 (번역서: "양자역학의 3가지 길")

"우주는 사물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The universe is made of processes, not things)

# 약동과 운동의 물질

- 물질은 운동을 통해 비실체화되고, 운동은 물질화를 통해 내재적으로 육화된다. 물질이 해방된다면, 그것을 움직이는 운동도 마찬가지로. 물질 없이는 움직임 개념은 '형식적' 또는 관념론적 범주로 머무른다." 그러나 약동 없이는, 물질은 정적이고, 비연속 적이고, 법칙에 구속되고 실체적이고, 그저 수동적인 것에 머무른다. (존재와 운동 103)

# 네일의 내부작용

- 분리된 입자들은 상호작용inter-action하지만 요동하는 장들은 내부작용intra-action한다.
- 자기가 자신에 반응하는 역반응, 이는 디랙이 문제 삼았던 것. 입자는 슈뢰딩거가 의도한 대로 파동으로 표현가능한 실체적 입자가 아니다.
- 전자는 스스로 행위하고 자신을 생성하는 능동적 행위자이다. 즉 전자는 thing 이 아니라 process이다.

(객체란 무엇인가 341)

## 네일, 양자진공에서 운동실재론으로

- 양자 진공은 텅빈 공간이 아니라 충만한 공간이다.(객체란 337), 가상입자의 생성과 소멸은 비결정적 운동적 진동이지만 실재한다. -운동실재론.  
“자연은 진공을 경애한다.”
- 아인슈타인처럼 숨은변수이론으로는 입자들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할 수 없다.
- 객체는 준안정적 상태이며 그런 상태는 비결정적이지만 입자상태를 공-  
창조하면서 안정화한다. (객체란 무엇인가, 338-340)

# 고리 양자중력이론(Loop Quantum Gravity, LQG)

##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통합

- 우주의 근본 시공간은 연속적이지 않고, 마치 촘촘하게 짜인 천처럼 불연속적인 최소 단위(양자)로 이루어진 양자화
- 스핀 네트워크(spin network)는 양자화된 시공간의 기하학적 상태를 묘사하는 핵심적인 수학적 구조로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시공간이 아니라, 최소 단위의 불연속적인 '알갱이'로 이루어진 양자 공간을 표현

# 고리 양자중력이론 - 스핀 네트워크

스핀 네트워크는 마치 아주 미세한 '양자 직물(quantum fabric)'처럼 우주의 시공간을 짜고 있으며, 이 직물의 짜임새가 우주의 기하학을 결정. - 네일에게 객체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객체는 근본적인 유동성(flux)이 특정한 방식으로 '접히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과정의 산물이다. 마치 강물이 소용돌이를 만들었다가 사라지듯이, 객체도 생성, 변화, 소멸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에 놓여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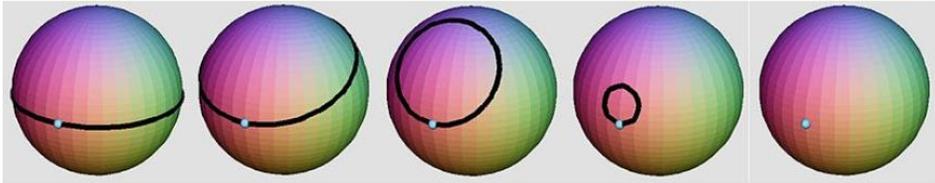
(객체란 무엇인가, 342)



# Poincare Conj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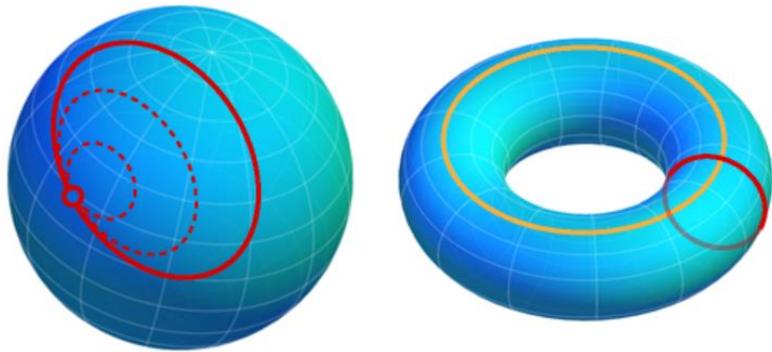
(1904)

Objects in which this is possible are spheres, ellipsoids and others.



All possible loops can be successful tightened to a point

Some objects that doesn't fall in this category are torus. This is because in some points on the torus, a loop will get trapped like a lasso. A much more detailed article on the conjecture will be posted later.



Some loops gets trapped like a lasso

- 위상 다양체를 보는 들뢰즈의 의미
- ① 연결성(connectivity),
- ② 변형가능성(transformability),
- ③ 사건화(evental field)의 장
- ④ 관계가 실체(Substance)보다 먼저 존재

## • 위상 관계의 토마스 네일

- ① 흐름flow의 속도와 강도에 따라 생성소멸하는 접힘
- ② 운동하는 구성체kinetic composition으로서 고리객체
- ③ 흐름 속 유지되는 관계들의 패턴

2003년 Grigori Perelman에 의해 증명됨

# 존재론은 물질적이다.

- 존재론은 고유의 도구 집합(기입장치) 및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가진 물질화의 실재적 작용 또는 과정이다.
- 존재론은 독립적 재현이 아니라, 역사적이며, 실천적이며, 그것이 기술하는 현대적 조건과 얽혀 있다. 존재론은 역사적 과정의 여러 면모들이다.

# 공창출, 공절합, 공응대

'A 때문에 B가 나왔다'고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사실은 A와 B가 역사적으로 함께 출현했고 **(co-emerge)**, 항상 함께 절합되어 있었으며 **(co-articulation)**, 서로 맞아떨어지는 **(co-respondence)** 관계였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닭과 달걀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함께 존재해온 것처럼.

- “운동성은 정지성을 전제로 한다. 운동 이론과 정지 이론은 같은 것이다. 다만 다른 강조점으로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일 뿐이다.” 화이트헤드는《자연의 개념The concept of nature》에서 변화는 현실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이고 현실적 존재는 여전히 정지적인 원자라고 평가한다. (토마스 네일의 관점)
- 그러나 현실적 존재는 원자적이기는 하지만 일원론적 원자가 아니라 다수적 원자, 즉 합생과정의 가능수 만큼 많은 수의 현실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복수적이고 다중적인 현실적 존재는 원자 자체의 운동성 특징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강사, 최종덕의 관점)

# 관계적 존재론1

-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고 배치하는 역동적인 과정
- 물체의 움직임은 그 물체 안에 이미 들어있는 본질적인 특성
- 관계는 사물이나 우리의 인식보다 더 근원적이고 독립적인 존재
- 관계는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배치하는 근원적이고 역동적인 힘

## 관계적 존재론2

- 객체는 그것이 다른 객체들과 맺은 모든 관계의 집합이다. 이런 관계론적 존재론에서 대표적인 것이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이다. 객체는 자신이 행하는 것 혹은 분포된 관계를 통해서 작용하는 방식이다. 객체는 관계존재의 네트워크 결절점node(준안정성)이다.
- 객체들 사이의 위계는 없다. 관계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 객체는 다른 더 넓은 네트워크에 의해 분화된다. 객체들은 생성소멸하지만 네트워크 패턴들 자체는 그렇지 않다.

## 네일의 박사학위논문 주제 : 사파티스타와 들뢰즈

*Returning to Revolution: Deleuze, Guattari and Zapatismo*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2015)

1994년 나프타에 저항하며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멕시코 정부에 대한 혁명법을 선언하며 출범했다. 사파티스타는 민중 의지에 맞춰 국가를 불법으로 선언하며, 대중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우리는 무력으로 우리의 해결책을 강제하길 원치 않으며, 민주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게릴라 전쟁식의 고전적인 무장 투쟁을 능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 대립이 아닌 정치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 죽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청하기 위해 싸웁니다."(부사령관 마르코스)

# 사파티스타 실천운동, 1994

- 빈부 격차와 원주민 공동체 파괴에 대한 저항
- 자치공동체 – 명령하되 복종하기
- 인터넷 적극 활용
- 무력아닌 협상
- 원주민 권리운동이
- 새로운 사회모델
- 다른 세상의 시민운동

# 물질 우선성, 모빌리티 패러다임

-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관점에 깊이 공감
- 운동유물론: 존재는 추상적 혹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의 운동
- 모순과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서 마르크스의 역사 이해는 흐름-주름-장이라는 네일의 객체 운동성과 같은 궤도
- 마르크스 『자본론』에서 자본을 단순한 축적량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증식하며 운동하는 흐름의 가치로 해석한 네일은 마르크스를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선구자로 평가한다.

## 네일의 kinocene, kinopolitics

- 인간(Anthropos)이 지구 시스템에 지질학적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지칭하는 인류세(Anthropocene)는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여, 실제로는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영향과 책임을 가리고 전가한다고 네일은 비판한다.
- 홀로세Holocene, 인류세를 넘어서 "운동세"kinocene를 제안
- '키노신은 지구상태만이 아니라, 지구정치학 kinopolitics을 제시하는데, 정치와 안정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운동패턴을 중시함으로써 기후자본주의, 소외와 빈곤국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방적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모빌리티 패러다임 - kinopolitics

- 정주적 sedentary paradigm에 대비한 운동 중 mobility paradigm
- 이동(이주, 이민), 자본과 상품의 흐름, 정보와 데이터, 기술 이동 등
- 정지된 영토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 정치(geo-politics)와 달리, 움직임과 흐름, 이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학
- 존재론(ontology) 자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한다.

# kinocene

- 정의: 세계의 존재원리가 안정성stasis가 아니라 운동motion
-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양의 물질과 에너지가 광범위하게 순환하고 이동하는 시대
- 광물, 식물, 동물 등 엄청난 양의 물질들을 지구 표면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이동시키면서, 화석 연료의 추출과 연소, 농업 생산 증대, 산림 파괴 등이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다양한 물질의 순환을 가속화하는 위기의 시대
- 기후 변화와 같은 거대한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온다.

# 정주성sedentary paradigm에 대비한 mobility paradigm

- '움직임과 모빌리티'로 정의되는 시대
- 이동(이주, 이민), 자본과 상품의 흐름, 정보와 데이터의 이동, 기술이동
- '키노폴리틱스(kinopolitics)' 개념을 통한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정치
- 고정 영토와 민족 정체성 기반 전통 정치(geo-politics)에 대항, 움직임과 흐름, 이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학
- 존재론(ontology) 자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인다.

## 모든 사람은 잠재적 이주민이다.

- 관광, 출장, 이주노동 모두 이주민의 다양한 모습이다..
- 이주민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위치 A에서 다른 위치 B로 이동하는 지정학적 장소place이동의 존재being가 아니라 변동하는displacement “됨과 생성”becoming의 운동자이다.
- 이주와 이민은 사회와 정치의 근본동력으로 유물론적 운동성의 모습이다.figure of movement, figure of the migrant

Nail 2021, The Philosophy of Movement: An Introduction. (Part II: History)

# 이주민의 다양한 모습

The figure of the migrant.(2015) Chap.3

- 유목민(Nomads): 문명 생성의 운동으로서 고대인의 이동
- 야만인(Barbarians): 고대 제국(특히 로마 제국)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존 정치 질서를 움직인 운동
- 부랑자(Vagrants): 봉건주의와 빈곤을 벗어나려 떠난 사람들의 잠재적 운동
- 프롤레타리아(Proletarians):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에서 고향에서 도시로 이동한 노동 계급의 현실 운동

